

광주 AI 기술 세계 홀렸다… ‘CES 2026’ 혁신상 ‘썩쓸이’

〈세계 가전 박람회〉

AICA 지원 기업 20개사 25개 수상…역대 최다 실적 쾌거

네이션에이·엘비에스테크·망고슬라브 3곳은 ‘최고혁신상’

2023년 1개→올해 25개 폭발적 성장…글로벌 경쟁력 입증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AI 기술력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 무대를 휩쓸었다.

14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광주 지역 AI 기업 20개사가 총 25개의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거머쥐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광주시와 AICA가 지역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해외 진출을 꾸준히 지원해 온 결과라는 것이 사업단의 설명이다. 광주 AI 산업 생태계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폭발적인 성장세다. 2023년 단 1건에 불과했던 광주 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 실적은 2024년 9건, 2025년 12건에 이어 올해 25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4년 만에 수상 실적이 25배나 된 것으로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는 ‘왕중의 왕’이라 불리는 ‘최고혁신상

(Best of Innovation)’ 수상 기업도 3곳이나 배출하며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썬네이션에이’는 텍스트나 음성, 영상 등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정교한 3D 동작(모션)으로 변환해 주는 생성형 AI 기술을 선보여 심사위원단의 찬사를 받았다.

이 기업은 최고혁신상을 포함해 총 3개 부문에서 상을 휩쓸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썬네이션에이’는 여행·관광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승·하차를 돕는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술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모바일 기기·엑세서리 부문의 ‘망고슬라브’는 AI 기반 전자 라벨 프린터 기술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이 기술은 세계 최초 상용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썬네이션에이, 썬에이드올, 마인스페이스㈜, ㈜고스트페이스, 이노디테크㈜ 등 17개 기업도 헬스케어, 모빌리티,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으며 광주 AI 기술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사업단은 이번 성과는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본토에도 울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사업단은 그동안 AI 데이터센터 구축, 실증 장비 지원, 전문 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펼쳐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CES 혁신상은 기술성과 디자인, 혁신성을 공인받는 ‘보증수표’로 통하는 만큼, 향후 글로벌 투자 유치와 수출 계약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CES에서의 성과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광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허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유니콘 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망고슬라브㈜의 직원이 홍보 부스 방문객들에게 AI 기반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제공〉

광주상의 “켄텍 총장 공백 장기화 대학 운영 불확실성 가중”

총리실 등에 소속 선임 촉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총장 공백이 장기화면서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켄텍은 2023년 12월 윤의준 초대 총장의 사임 이후 총장 공백 상태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컨더십 공백이 에너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텍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국가 과

학기술 발전과 고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22년 나주시에 개교한 에너지 특성과 공과대학으로 국가 에너지 연구와 산학연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에너지 중심 연구대학이다.

광주상의는 “컨더십 부재가 지속되면 대외적으로 국가연구과제 주수와 우수 인재 확보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내적으로는 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시스템 안정화가 지연될 수 있다”며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켄텍만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켄텍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부의 조정·감독과 지원·육성 체계 아래 운영되고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켄텍 이사회가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이같은 문제점을 담은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켄텍의 정상화는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뒷받침하고 국가 에너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직결된 사안”이라며 “조속한 총장 선임을 통해 대학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이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전남 12개 제품 ‘혁신제품’ 신규 지정

수의계약·혁신장터 등록 등 지원

광주지방조달청은 “2025년 제5차 혁신제품으로 광주·전남지역 12개 제품이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초경량 저산량 포터블 엑스선 촬영 장치, 전력선통신 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이 융합된 터널 시선 유도등, 굴곡 판재를 적용한 내진형 물탱크 등 총 10개사·12개 제품이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성이 높고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발굴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된 제품은 수의계약, 혁신장터 등록, 시범 구매 사업, 공공기관 대상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광주·전남 기업들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혁신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신보 소상공인 보증 5500억원으로 확대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및 내수침체 등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증정책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린 5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비대면 보증신청 및 심사 절차 간소화, 현장 상담 확대 등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인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 및 전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군 이자보전 자금 등 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처럼 3억원 규모의 전남도 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보증금 부담을 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300억원), 코로나 피해 분할상환 특례보증(300억원),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보증(100억원) 등 다양한 상품을 지원하며, 중·저신용자 지원 특별보증(500억원), 소상공인 버팀목 마이너스보증(100억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보증 300억원을 통해 여수와 광양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상권 침체우려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융·보증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사업도 연 70회로 확대 운영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본부 신입 24명 임용장 교부식

전남 출신 신입 농협은행원 24명이 첫 근무에 들어갔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지난 12일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지역출신 6급 신입행원 24명에 대해 임용장 교부식(사진)을 열고 새내기 직원들의 힘찬 첫 출발을 응원했다.

이들 직원들은 전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남 소재의 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로, 임용장 교부식 이후 영업점에 배치돼 근무를 시작했다.

신입 행원들은 이후 선배직원과 일대일 직무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농협은행 전남본부 관계자는 “사·도 단위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전국적으로 565명의 신규 직원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개채용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723.10 (+30.46)
↓ 코스닥	942.18 (-6.80)
↓ 금리 (국고채 3년)	2.996 (-0.007)
↑ 환율 (US D) 〈오후 4시 40분 기준〉	1475.25 (+1.55)

기아, 광주 생산 ‘디 올 뉴 셀토스’ 사전 고객 초청 행사

31~2월 1일 광주 등 전국 14곳

당일 계약 고객 보험 경감 혜택

기아가 광주에서 생산하는 ‘디 올 뉴 셀토스’ (사진) 출시에 앞서 사전 고객 초청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이달 말 전국 주요 전시 거점에서 차량을 먼저 공개하고 사전 신청 고객을 초청해 차량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14일 기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 기아 체험 공간인 기아360과 성수동 전기차 전시장, 인천·광주·원주 매장 등 전국 14곳에서 진행된다. 기아는 사전 신청을 통해 고객과 동반 1인 등 총 8400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고객은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전문 도슨트의 설명을 통해 새로워진 셀토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행사 당일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까지 완료한 고객에게는 차량 화면 데모 1종이 제공된다.

기아는 생애 첫 차로 디 올 뉴 셀토스를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자기 차량 손해



사고 발생 시 고객 부담금을 사고당 최대 50만원, 차량당 최대 두 차대까지 지원하며 총 지원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사전 고객 초청 행사에 신청한 뒤 3월 31일까지 차량 계약을 완료한 고객 가운데 1000명을 뽑아 ‘디 올 뉴 셀토스 데님 보스턴백’을 증정한다.

사전 신청은 이날부터 계약 개시일 전까지 기

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차량 공개 행사 참여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한 고객 중 추첨으로 선정한다.

기아 관계자는 “디 올 뉴 셀토스는 일상과 여가 모두에 어울리는 차”라며 “출시 전 고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특별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삼일건설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 회생절차 돌입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유탑건설에 이어 삼일과 라뷰 시공사인 삼일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고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14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일건설은 지난 12일 광주지법으로부터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을 받았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삼일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없으며 현재 경기도·충청도와 무안·화순 등에 아파트가 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공사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시공 지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생절차 신청 배경으로 충주시와 아산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약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지목하고 있다. 수백 세대가 동시에 계

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수백억 원대 보증금 반환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개정 이후 임대주택 보증금 산정 시 기존 사업자 감정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만 인정되면서 감정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운용 구조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일건설은 법원 실사 이후 회생 가능성을 검토 받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공 리스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아시아나 인천공항 2터미널 시대

터미널 옮겨 G~J열 카운터 수속

아시아나항공이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옮겨 운항을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이래 25년간 사용해 온 1터미널을 떠나 이날부터 2터미널에서 운항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2터미널에서 운항하며 통합 항공사 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터미널에서의 탑승수속은 3층 동편에 위치한 G~J열 카운터에서 진행된다. G열은 백드롭 전용 카운터, H열은 백드롭 카운터와 일반석 카운터가 병행 운영되며, 비즈니스클래스 승객과 우수회원은 J열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라운지는 2터미널의 대한항공 라운지 4곳을 이용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